

제137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9. 11. 28.(목) 11:00

☐ **장 소** : 달개비(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옆)

☐ **참 석 자** : 이사 11명, 감사 2명

○ 이 사 :

○ 감 사 :

☐ **주요내용**

[연구원 조직개편(안) 보고자료]

○ 회 의 건 수 렴

[이사장 호선]

○ 를 으로 선출

[안건 심의]

- [제1안건] 2020년도 사업계획(안) : 원안의결
- [제2안건] 2020년도 수입·지출예산(안) : 원안의결
- [제3안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의결
- [제4안건] 2019년도 상근임원(원장) 연봉결정(안) : 원안의결
- [제5안건] 임원 연임(안) : 원안의결
- [제6안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제7안건] 2020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 원안의결

□ 회의록 내용

-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입
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님, 님께 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롭게 임명되신 당연직 와
당연직 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국장 님입니다. 서울시 정책기획관
님입니다. 당연직 이신 서울시 조직담당관 과장님은 조금
늦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선임직 인 님은 제
주도 특별강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회에 앞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님께서 지난 7월 20일 연임되셨는데, 로 연임되었으며,
으로 자동 연임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이 공석입니다.
연구원 정관 16조 2항에 ' 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선임일이 빠른 가, 선임일이 같은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님이 임시 의장으로 을 호선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 : 지금 본부장님 설명대로 은 진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
습니까? 지난번 연임되었을 때 으로 호선하지 않았던 이유
가 있었나요?
- : 7월 임시이사회는 서면의결로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신임 이사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임 이사장으로서 저희 연구원과 이사회를 잘 이끌어
주신 님을 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 재청 있습니까?

○ 모두: 없습니다.

○ : 이의 있습니까?

○ 모두: 없습니다.

○ : 서울연구원 이사장으로 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연임 이사장님께서 이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님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회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사장으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자리를 비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0여 년 전 연구원을 만들 때를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는 연구원하고 인연이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월도 달라졌고 연구원이 거의 10배 성장했습니다. 회를 통해 좋은 분들하고 가끔이나마 만나 볼 수 있다는 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이사회 성원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적이사 12분
의 이사님 중 님을 제외한 11분이 참석하셨고,
 님이 참석하셔서 정관25조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37회 정기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서울연구원 조직개편(안)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안건은 아니고 보고사항인데 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 서울연구원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존 '기획조정본부'의 연구와 행정 기능을 '연구기획조정본부'와 '경영관리실'로 재편하여 조직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시키고, 기존 '도시정보센터'의 기능에 빅데이터 수집·분석, 사회조사 등을 확대 강화하고, 성평등·인권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성평등인권센터'를 정규조직으로 격상시켜 원장 직속으로 두는 안입니다.
2안은 기존 도시정보센터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보고서 발간 등의 주요 기능을 신설되는 '연구기획조정본부'로 이관시키고, 전산업무 중 하드웨어 적인 업무는 신설되는 '경영관리실'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사항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은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이후 연구원 내부 논의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려 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직제규정 개정(안)은 12월 중 서면심의로 진행하려 합니다.

○ :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제가 얼마 전에 연구원과 비슷한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어서 조사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했었습니다. '성평등인권센터'는 아주 적절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교육과 예방지침을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원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런 뜻이지요?

○ : 작년부터 이 센터를 임시조직으로 우선 운영하면서 내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인권, 성희롱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조직이라 판단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는데 매우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우선 시작했습니다.

운영해보니 여러 부분에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높은 수준의 준비과정이 필요했고,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 원장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정규 조직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 : 저희 대학도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를 총장 직속으로 해서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성평등인권센터'가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이 피해자와 일대일 개인적 사항처럼 처리되는 비밀주의가 있어, 가해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징계를 받거나, 또는 피해자가 거기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2차 가해가 많습니다. 센터가 신설되면 공동체 예방이나 교육이 서울연구원이란 연구원 조직에 맞는 커리큘럼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 대학도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담당했던 분을 강사로 초청해 교육하면 일반 직장과는 다른 교수사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형태로 위계가 구성된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 조직문화를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 원장 직속조직이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 : 현재는 '감사실'만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있습니다.
- : '성평등인권센터'가 추가되는 것이죠?
- : 연구실과 비교하면 기획조정본부의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 인원수는 약 60명 정도이며 연구실보다 큼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연구에 대한 기획, 관리, 대외협력, 홍보, 인력관리와 평가 이런 업무를 기획조정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 인력관리와 평가 등 그러니까 인사 기능도 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사, 총무 등의 지원기능을 경영관리실로 분리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본부에서 몇 명이나 줄이게 되나요?
- : 인력 구성상으로 보면 연구기획조정본부에 20명, 경영관리실에 나머지 40명 정도가 배치됩니다.
- :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2안을 보면 도시정보센터를 연구기획조정본부에 넣겠다는 것인데 도시정보센터는 몇 명이나 됩니까?

- : 도시정보센터는 25명 정도 됩니다.
- : 별도로 운영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본부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 : 도시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은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고, 외부에 전파하며, 성과물을 보관하고 편찬하는 역할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요즘 흐름 자체가 거대 데이터에 기반해 연구를 수행하는 흐름이고, 연구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 기본적으로 기획조정본부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각 연구실을 컨트롤하는 기능은 최소화하고 효율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쭙보았습니다.
- : 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연구원의 틀입니다. 기획조정본부는 다른 조직과 수평조직인 구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기획조정본부의 기능을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연구기획과 행정관리는 둘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본부의 연구기능에 정보센터의 기능이 연결되느냐 아니냐가 1안과 2안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둘을 한 울타리 안에 넣는 것이 목적을 가진 정보매니지먼트에서 유리하고 연구를 기획함에 있어서도 데이터베이스화된 연구 기획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기능은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 보다는 여러 연구 분야가 융합하도록 만들어 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의 역할이 현재보다는 조금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보다 조금 위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 제가 2년 넘게 연구원에 있으면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기획조정본부가 연구기획 기능과 경영관리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굉장히 과도해서, 연구기획 기능이 약화되고 경영관리 기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두 분야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구기획조정본부를 새로 만들게 되면 연구기획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각 연구실이나 연구기관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융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통제하고 지시하는 방식이 아닌 각 연구실과 대등하게 그러면서도 융합이나 통합이 잘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계 체계가 대등하게 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정과 융합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도 분권화가 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 연구주제가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가 많습니다. 크로스커팅 이슈나 주제라고 보입니다. 칸막이로 분야별 조직을 세팅하게 되면 많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수평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하되, 다른 연구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가 현대 조직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하게 인력을 분야별로 구성하지만, 연구과제에 따라 자유롭게 인·아웃 할 수 있도록 조정과 기획 기능이 발휘되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연구원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 :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과거의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전의 편재와 비슷해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 당시 기획조정조실과 행정실을 합쳤던 이유는 기획과 행정이 같이 가야 하는데 연계가 안 되어 자주 마찰도 생기고 해서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본부 안에 기획을 전담하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되지 않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발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본부에 하부조직으로 연구기획실과 경영관리실을 두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나눈다면 기획조정본부는 기획조정실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는 빅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 차라리 빅데이터센터로 별도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내부에서 많이 토론하셔서 잘 만드신 안을 이후에 서면결의로 상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운영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안), 수입·지출 예산(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상근임원(원장) 연봉결정(안), 임원 연임(안), 복무규정 중 일부개정(안), 2020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 첫 번째 안건으로,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 :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2020년에 수행할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원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실과 1본부 6실 3센터인데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월 중 개편을 하려합니다. 정규직 219명 포함한 354명의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올해는 24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체연구과제는 183개, 수탁연구과제는 65개로 자체연구인 경우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수탁연구는 전년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박사) 1인당 연구과제 수 3~4개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연구기간은 6~7개월입니다.

6쪽의 연구기반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연구과제 기획력 강화를 위해 시정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내년도 기획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빅데이터를 지원하여 다각적인 연구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민선7기 서울시정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한 사회조사도 수행을 하였고, 구정연구 지원을 위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5개 자치구에 연구지원 박사 22명과 석사 25명을 배정 하였습니다.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언론보도와 인터뷰가 약 4900여건 이며, 서울큐레이터 4회, 한겨레 '서울&' 비주얼뉴스를 통한 성과 확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수행 목표는 총 235개로 자체연구 185개, 수탁연구 50개 이고, 연구예산을 160억을 배정하였는데 전년 대비 29% 증가한 금액입니다. 8쪽은 내년에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대표기획과제입니다.

185개 자체연구과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에 20개를 내년도 대표기획 과제로 선정했고, 분야를 보시면 사회갈등, 균형발전,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서울-평양 올림픽입니다. 세부적인 과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방향,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 상생전략,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의 방향과 실행 전략, 4차 산업혁명시대 교통 및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미래 도시변화예측 및 대응방향 연구, 2032년 서울-평양 공동하계올림픽 유치 방향 연구 등입니다. 그리고 9쪽부터 15쪽은 연구부서별 연구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시면 내년도 원장직속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기존 서울시 투자심사와 서울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심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올해 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인증 민간투자 제안서검토 전문기관으로 센터 지정되어 관련 적격심사, 사업자와의 협상,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정사업 145개, 민간사업 5개, 연구과제 5개 총 155개입니다.

17쪽을 보시면 내년도 연구기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기획 및 역량강화를 위해 5대 분야별 TF를 상시 운영하여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위한 데이터 구입 및 분석기술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경험 공유의 장을 확대하고 메가트렌드의 이해와 혁신적인 솔루션 모색을 위한 '콜로퀴움' 특강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발굴경로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신규로 구성을 하겠고, 전환도시 사례조사, 전문가 포럼,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미래서울비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참여기관, 외부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통해 현장성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겠고 '작은연구 좋은서울' 같은 시민이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정 연구단 운영 안정화 및 연구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도시연구소와 연구교류 및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연구성과 관리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서울이슈큐레이터' 운영을 보완하도록 하고 연구성과를 확산을 위해 소식지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의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획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확대 추진하겠는데 매해 하는 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와 국제전환컨퍼런스를 추진하고 서울 세계평화포럼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사회갈등 국제컨퍼런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20쪽을 보시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가 서울시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활용부서를 지정하고 협의하여 활용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좀 더 체계화 하겠습니다. 정규직 석사연구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박사들과 동일하게 하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조직운동을 위해 저성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포괄임금제는 직원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획과제인 미래 서울비전연구와 2020년 서울평화포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 사업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본 안전에 대하여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인문학적 관점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 : 2019년에 사업 중인 실적이 248개로 나와 있는데요.
2020년 추진계획은 235개로 줄었습니다.

대체로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상향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사업 목표설정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요?

○ : 5쪽에 올해 2019년 현재 실제로 수행한 연구과제 수가 248개 이지만 목표는 자체연구 185개, 수탁연구 50개로 총235개입니다. 실제로 수행한 실적이 목표를 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쪽에 2020년 연구수행 목표를 보시면 2019년 목표인 235개와 같은 개수입니다. 대부분 해마다 양을 늘려서 목표를 잡고 있지만, 연구원에서는 더 이상 목표를 늘리면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오히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에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가능하면 당분간 목표 개수는 유지하면서 좋은 연구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질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구의 양을 늘리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 전년도 보다 줄이지 않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올해와 내년 235개가 목표는 같으며, 대신에 연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 예. 목표치는 같습니다. 대표기획과제에 대하여 부연 설명 드리면 올해 대표기획과제 선정과 다르게 내년도 대표기획과제는 대단히 공을 들였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많이 했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으며, 기획위원회라는 임시위원회를 운영하여 많은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 내용 중 19쪽에 국내세미나 활성화 방안, 서울세계평화포럼 주제가 '보편 평화를 향해'라고 되어 있는데 인문학적으로 볼 때, 굳이 '보편'이라는 말을 넣어야 하나 싶습니다.

○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5쪽에 '2019년 주요사업 성과'에서 연구책임 박사 연구과제수 3.4개, 평균 연구기간 6.2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고 계량화해야 되겠지만, 연구원이든 교육원이든 거기서 하는 활동들을 보고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숫자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숫자에만 멈추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20쪽과 연결됩니다. 연구성과 관리체계 강화의 연구원 평가제도 개선에서 연구결과물들을 서울시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했느냐를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구결과물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효과에 기여했는가에 따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적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질적 평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길게 보고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원 박사급의 동기부여에도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좋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고서 편집위원회를 두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대한 보고 과정도 있습니다.

질 평가를 통해서 개인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내부의 노력과 실제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생산된 보고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 : 그런 결과에 따라 각 연구원에게 어떤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 :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좀 더 정교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당연직 이사님들이 실제 연구 수요처인데 대변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번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되었는데,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서울시뿐 아니라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의회 관련 과제가 1건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의회 의정연구도 우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원에서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행정국장직을 맡고 있지만 그 전에 스마트시티 정책관을 했었습니다. 8쪽 대표기획과제에서 서울연구원에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베이스가 확실한 연구원들이 아직 많이 확보되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연구 분야에 대한 역할분담을 많이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제가 연구기관을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연구원 정체성 관련해서 자체연구와 수탁연구의 비율을 봅니다. 첫째, 수탁과제가 많으면 용역회사로 전락하기 때문에 연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수탁연구 비율이 17%, 올해는 8:2로 개선되고 있어 좋은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연구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박사 1인당 몇 개 과제를 하느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기간을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연구기관의 연구의 기본적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연구는 기본베이스로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구기간도 1년씩 주어서 아무런 압력이나 제약 없이 자신의 전문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정현안이나 정책수요에 따라서 기관이나 예산지원이 차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1인당 연구과제수가 3.4개, 연구기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과제는 1년, 정책과제는 과제를 발의한 부서와 협의를 통해 기간과 예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연구기관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협동과제입니다. 다른 분야와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동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연구원은 시립대학이라든지 서울시 다른 연구기관 등과 협력이나 협동과제를 전략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 과제들을 보니 서울시의 권한 범위에서 굉장히 세부적이며 실용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통 등 생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절실한 과제들이 부족하다는 생각됩니다.

먼저, 주택정책 관련입니다. 최근 건교부에서 17차례 서울을 타겟으로 주택정책을 펼쳤는데 저는 17번 모두 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에 맡겨놓고 있어도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택시문제입니다. 제가 밤에 서울역에 내렸을 때 두려웠고, 몇 주 전 한시 쯤 수서역에 내렸는데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서울시 품격에 맞는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 효과를 서울연구원에서 평가하면 어떨까 합니다. 중앙정부 정책 중 사실상 지방정부로 넘어와야 하는 권한인데 중앙정부에서 여전히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등을 협상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으면 합니다. 사실 부동산정책, 시장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 중앙정부는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서울시에서 하면 훨씬 더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지방정책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면 이제는 시각을 바꿔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를 평가한다는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 평가시스템 안에 자기표절금지 장치를 받는 것과 한편으로 어떤 연구원의 박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심의 있게 하는 것과의 조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평가시스템 안에서 하시지요?
- : 과제가 끝나면 연구책임자 스스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 체크를 하고 15%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고 또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해외출장보고서 및 외부 위탁 보고서도 대상이 됩니다. 표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어떤 박사님이 한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전공하신 책임자라면 opinion leader나 maker로서 TV, 방송 등 미디어나 신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중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의견을 말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해 졌습니다. 이제는 연구원의 좋은 연구가 소개되고 전문가로서 미디어 매체에 나오는 Connectivity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그것도 적극적으로 기획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 평가할 때 가점제도에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매우 중요한 연구나 새로운 발견은 미디어 배포를 통해 신문이나 포털에 인용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 : 님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일반적인 의미로 연구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시정연구니까 정책연구결과물로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을 내놓았냐가 본질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가졌던 역할이나 위상에 비해서 약화되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라는 정책을 발굴했고, '계절관리제'로 이름을 바꿔서 중앙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적어도 1년에 한두 가지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 : 서울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개인 연구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가장 잘 발굴한 박사가 서울연구원의 상징도 되고, 대표가 되어 미디어 기획이라든지 계획이 적극적으로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 14쪽 자체연구 도시공간과제에 '새로운 광화문광장 운영방안 연구'가 있는데 2020년에 새로운 광화문 광장 운영을 연구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 : 현재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애초에 세웠던 계획 자체를 유보하고 여러 당사자들과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의견이 수렴되면 내년에 실행에 들어가는데 실행단계부터 운영 주체, 운영 방안이 결합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리 연구를 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 :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이미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시민들 만나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형식이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시설이나 공간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다 만들어 놓고 운영을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 : 이야기 나온 김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젠다 연구 21 쪽과 이어질 수 있는데 어젠다 연구는 좋은 착상입니다. 멀리 보면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멀리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벌어지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것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쪽의 내용이 현실에서 출발해서 멀리 본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젠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까. 추진계획 1, 2, 3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시민 하나하나가 봉착하는 절절한 어려움들 여성이면 여성, 젊은이, 노인,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어려움과 그것을 포착해서 어젠다화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8쪽의 대표기획과제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림픽 유치는 서울시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닙니다. 훨씬 더 위의 조직들이 움직여야 할 일들입니다. 서울시에서 미리 대비하면서 현명하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은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임팩트를 어떻게 서울시의 본질적인 요구와 결합시켜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하는 촉진제로 쓸 것인지 입니다. 도시적인 임팩트와 관련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출발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두 번 해 봤습니다. 88올림픽이 있고, 2002월드컵이 있습니다. 두 모델은 아주 상반된 모델입니다.

88올림픽은 불이 잘 붙은 동네에 기름을 더 부어주고 양분을 더 주어 강남, 강북의 격차를 만들어준 시점이 그때라고 볼 수 있으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모델이었습니다. 2002월드컵은 그 당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촉진하겠다는 모델이었습니다.

2032년에 중요해 질 이슈는 서울·평양의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어젠다가 무엇인가? 입니다. 크게 제대로 공부하면서 사례를 깊게 들여다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님께서 말씀하신 적정한 외부수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통용되는 비율이 있습니까?

○ :서울시가 출연금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할 때는 5:5, 서울시가 출연금 예산을 충분히 줄 때는 7:3, 그 30%를 넘으면 용역회사화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과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충분히 자율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기획과제와 스마트부분의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8쪽 대표기획과제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전개되어 있고, 그 중 스마트부분이 5개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연구실들의 연구사업 내용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4쪽 자체연구와 수탁연구에는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내용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 :대표기획과제는 대표기획과제대로 분류를 했으며, 대표기획과제는 각 실들이 융합해서 공동연구를 해야 하는 주제들이 많아서 특정 실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저도 이상해서 연구과제 수를 더해 봤습니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연계가 이상한 것 같아 더해 봤더니 별개였습니다.

○ : 첫 번째 안건이 중요한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연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연구원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논의는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 2020년도 사업계획(안)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모두:** 예.

○ : 두 번째 안건, 2020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연구원 2020년도 수입·지출예산(안)으로 연구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와 연구원의 인력, 시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5~26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서울연구원의 총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434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크게 서울시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나뉘지는데 서울시 출연금이 336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38억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9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나눠보면 연구사업비가 23%, 경영사업비가 16%, 인건비가 46%, 예비비와 수탁연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연구사업비가 29% 증액, 경영사업비가 22%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시면 연구사업비가 약 102억 원으로 2019년 78억 원 대비 23억 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선진형 자치연구 운영, 미래 서울 비전연구, 2020 서울평화포럼 기획연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진형 자치연구는 구정연구지원단 지원 예산입니다.

각 구당 2명씩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중간시점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7개월 인건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2개월 인건비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올해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평화포럼도 내년에는 15억 원 증액됩니다.

27쪽 경영사업비는 약 70억 원으로 올해 57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갈등해결과 국제세미나 개최에 5억 원, 산업안전관리 외부위탁 예산이 약 5천만 원 도시정보시스템에서 노후 방화벽과 스토리지 교체로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을 보시면 내년에 단행본을 확대발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공시 인상률인 2.8% 적용하여 199억 원, 예비비는 3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수탁연구비는 58억 원으로 2019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지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시의회 심의 절차가 있죠?

○ : 예. 의회 절차가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연구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만 통과했습니다. 시의회에서 12월 말에 최종으로 확정됩니다. 회 일정과 맞지 않아 의결을 먼저 하시더라도 시의회에서 감액이나 증액될 경우 다시 서면심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의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 :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저와 원장님이 같이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임위가 중요하므로 한번 했으니까 예결위와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 :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임위를 존중해 줘야죠.
- : 다른 출연기관의 경우 대부분 예산이 의결된 후 회를 개최하여 예산을 확정합니다. 연구원은 회계기간 만료 한 달 전에 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과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의회에 들어갔을 때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 회의기간을 조정해야 할지. 규정을 바꿔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그것은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회는 자존감을 가지고 연구원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시민이 대표된 서울시의회가 더 넓은 시야에서 서울연구원회를 거쳐 나온 (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논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논리를 다르게 보면 시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연구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의 논리를 제시하시면 의원들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 : 크게 문제없을 것입니다. 주로 늘어난 예산의 투입 부분이 평화연구, 어젠다연구 등 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머지는 대동소이한 구성입니다. 님들, 님들은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 : 대외협력에서 언론보도 광고기획협력 부분을 광고에만 제한하지 말고 님 말씀하신대로 연구위원들이 언론에서 분야를 리드하며 활동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기획보도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 의결 하겠습니다.
- **모두:** 예.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가 경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모두 3가지인데 첫째가 금년도에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성과급 지급률이 250%로 결정되었습니다. 매해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는 190%만 반영 해놓았기에 성과급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현안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수시과제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과제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여 소요되는 수시연구수행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4가지 유형의 연구과제 중 현안연구수행비에서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미세먼지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과 우리 연구원이 협업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연구원의 역할은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려면 상당히 고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사업비의 도시정보부문 예산에서 전용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8억 4936만원으로 예산 변경은 3억 3000만원이며, 나머지는 항목 내 경정을 통해 확보하는 것입니다.

34쪽에서 36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36쪽을 보시면 사업의 세부내역 내에서 어떻게 증액과 감액이 되었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8억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사업비 중에서 현안연구수행비, 경영사업비 중에서 간행물발간, 연봉급에서 급여, 예비비에서 감액이 있고, 연구사업비에서 수시연구수행비, 경영사업비 연구장비 구입 및 운영비, 연봉급의 퇴직급여와 법정부담금, 성과급은 증액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연구원 평가가 미세먼지 센터도 참 잘한 것 같아요.
- :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 : 기관장과 기관평가 모두 좋게 평가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기관평가가 '가' 등급 250%가 현재 제도 안에서 제일 높은 건가요?
- : 275%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기관장도 그런가요? 여기 기관평가 250%면 연구원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개인별 차등을 하나요?
- : 개인별 차등은 연구실적, 연구의 질과 양, 근태 등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C, D로 나누고 있습니다.

- : 250%라고 하면 대체로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 : S등급은 월봉의 180%, D등급은 20%입니다. 기관성과금이 250%이기 때문에 2.5를 곱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등급이 연구직 박사, 석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서울시 행정사무 에서 등급에 차등을 두어야 되는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 등급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고민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박사급 연구원은 20%~180%, 석사급 연구원과 일반직, 전문직은 50%~150%, 공무직은 75%~125%입니다. 유인의 효과가 많이 필요한 직종에 편차를 많이 두고, 평가가 어렵고 비슷한 일을 하는 직종에 편차를 적게 하는 체계입니다.
- : 시의회의 지적도 이해가 되고, 지금 연구원 체제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며 인력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냥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종별 차등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에서 지적이 있었다니 가볍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도 있게 따져봐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검토는 별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모두: 예.
- : 없으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 : 2019년도 상근임원(원장) 연봉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도 상근임원 원장의 연봉결정(안)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2019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 통보'에 따라 원장의 연봉을 3%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기관장 평가점수는 91.70점으로 S등급을 받아 기본연봉을 3% 인상하도록 통보 받았고, 2019년 연봉은 1억 5124만원입니다. 이사회에서 연봉이 결정이 되면 이사장님과 계약을 하게 되며, 올해 1월부터 소급하게 됩니다.

○ :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S등급이었지요?

○ : 예, 그렇습니다

○ :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9년도 상근임원(원장) 연봉결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 다섯 번째 안건, 임원 연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0년 1월 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님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서울연구원 정관에 따라 연임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
니다. 이 안건은 오늘 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 : 본인이 연임을 허락해 주신 것인가요?

○ : 예

○ : 의견 없으시죠?

○ **모두:** 예

○ : 임원 연임(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 여섯 번째 안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시간외근무와 공휴일에 근무명령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반영하여 임신한 경우 검진, 만 5세 이하 자녀의 돌봄, 육아,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휴식, 병원진료 등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2~43쪽의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휴무도 명령을 내야 합니까?

○ : 요즘에는 52시간 근로시간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 : 휴무는 권리가 아니고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 : 아닙니다. 휴무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휴무일에 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 42쪽 개정안의 표현을 보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이 직원에게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휴일에 원장이 지시를 해서 근무를 했다면 근무한 사람에게는 정상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인데, 그 권리행사를 왜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형식적인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 : '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시죠?

○ : 그 이전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특성상 일반 직장에도 주5일 근무인데 연구원이 공휴일에 꼭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 : 행사나 포럼 같은 경우 주말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포럼 같은 경우 연구원이나 행정직원들도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근무일에 하루 쉬게 하는 취지이며 직원의 권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장의 권한'이라 표현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표현이 이상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 다른 기관에서는 근무를 할 경우에는 '쉬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지 않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고쳐져야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 그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 :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오해의 해석도 있겠네요.

- : 어느날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체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그 다음의 정상근무 일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 다른 곳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안 쉬고 자기가 쉬고 싶은 날에 쉬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표현이 애매하긴 한 데 이것이 '공무원 복무조례'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일단 해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받아서 직원 권리로 고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 군대에서 휴가 신고할 때 '휴가를 명받았습니다.'라는 것과 같아 우리 세대는 익숙한데요.
- : 그것은 옛날이야기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 : 본인이 원할 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주일 이내로 지정한 것은 과로나 직원 관리 차원에서 규정한 것 같습니다.
- : 여성보건휴가가 꼭 임신한 경우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임치료, 유산 등 임신을 위해 전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성보건휴가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검진을 위한 것으로 매월 1일은 너무 많지 않은지요? 과도검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대가 달라지고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이며, 임신하기 위한 경우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험관 아기도 그렇고, 간신히 임신했는데 유산한 경우도 많습니다. 임신한 경우라고 지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 : 저도 인화원 원장할 때 용어도 없을 때인데 난임휴가제도를 처음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 : 참고로 공무원은 '유산한 경우 부부가 함께 3일간 특별휴가를 받는다'가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 43쪽의 신설된 7항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자녀돌봄휴가는 너무 형식적인 문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2명을 전제로 기간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가 1명인데 해주려면 1명도 다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3일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보다 넘어서는 경우에 적극적인 유인책을 주는 것 같습니다.

○ : 공무원제도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연간 2일이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하루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앞에서 공무원 복무조례에 난임 휴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원 규정에도 님이 말씀하신 난임 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예, 복무규정의 다른 조항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 중 임신부의 보호조항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 : 여성보건 휴가가 아니라 재생산 관련한 휴가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도 가야 하거든요. 임신과 관련한 것으로 말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 : 기존의 조항에는 임신부보호 내지는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 이미 복무규정에 세세하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 : 이미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 : 그럼 복무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오늘 정기 회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2020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연구원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연구원에서는 매년 회 의결을 거쳐 1월말 까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정비까지 요청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 연구원에 해당되는 관련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과 보건 등 분야별로 책임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맨 마지막에 있는 방문자 안전매뉴얼은 빨리 읽어야 하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는 너무 정중하게 해서 하든지 말든지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고 간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 방문자 안전매뉴얼이라 정중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 : 매뉴얼은 간소하고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될 것 같습니다.
-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마지막 안건 2020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방문자 안전매뉴얼의 문구는 간결하고 간소하게 보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본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 : 내년 정기 회의는 3월 넷째주인 23~27일 사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137회 정기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 님 드립니다.

의사록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019. 11 . 28 .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